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10,
요나, 3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10회차 요나서 3부입니다. 기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인도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요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뒤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 삶의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항 가운데, 여러분이 크게 염려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당신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로 그 확신 안에 안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요나를 향해 여행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물고기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정보.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바다 괴물, 또는 여기에 묘사된 바와 같이 단순히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제공하신다. 그들은 그분께 귀속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으로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구출한 이 물고기에 대해 말합니다.

삼키는 일(17절)과 토하는 일(2장 10절)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위 주제인 바알은 페니키아 세계, 가나안 세계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날씨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요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징표다. 1장 마지막 구절, 즉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지낸 시간에 언급된 삼일 낮과 삼야는 단순히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흘 낮과 사흘 밤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것이 72시간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3번 24일, 3일 , 3박.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72시간 중 39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복음서를 보자. 예수님은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정오부터 제9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금요일 오후 늦게 십자가에서 내려져 묻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는 3시간, 토요일에는 24시간이 있고, 일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이 시작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새벽 6시까지 3시간 더하기 24시간 더하기 12시간이 됩니다. 이제 일요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39시간이군요.

또 다른 좋은 예는 성경의 문학적 유형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자면, 인자는 밤낮 3일이요, 땅의 마음도 밤낮 3일인 요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어의 특수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며, 적어도 이 경우에는 3일의 전체 기간 중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요나처럼 사흘 밤낮을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모형적 적용은 확실히 신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요나가 자신의 물무덤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그가 그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2.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이야기에서 시적인 부분, 즉 직접적인 산문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물고기 안에 계실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따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처럼 그는 구원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회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음부 깊은 곳에서 응답하셨도다. NIV GRAVE의 각주는 Sheol 입니다 .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스올 에 갔었습니다 .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모든 사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스올은 무덤과 동의어였다. 그곳은 바로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덩이로 번역됩니다. 당신은 늘 스올 에 내려가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 단어에 해당하는 신약성경의 하데스(Hades)는 70인역에서 보통 그리스어로 무덤을 뜻하는 스올(Sheol) 로 번역한 것입니다 .

그곳은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치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그는 구조된 후 하느님의 자비가 그의 삶에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을 지탱해 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시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성도들에게 항상 격려와 실존적 영적 동일성을 제공해 왔습니다.

음악으로 설정된 이 시들은 우리를 유대인의 개인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하나님께 대한 불평, 영적 경험의 문제에 대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능자로부터 오는 엄청난 이해와 위로와 인도를 느낍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기도를 회상하면서 아마도 시편 118편의 일부를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서관에 상호 참조 성경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한 가지 이유로, 주석을 꺼낼 시간이 항상 없다면, 관주 성경은 종종 remez 를 보여줄 것입니다 .

레 메즈(remez)는 작가들이 종종 암시하는 방식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 해석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메즈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 언어를 되풀이하는 이전 구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때로는 암시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경험입니다.

시편 18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과 똑같은, 즉 주님의 구원이 이 시편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는 적들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군요, 그렇죠? 2장에서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해초에 대해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있었던 물무덤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의 올무가 나에게 닥쳤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는 주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2장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은 단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장차 그곳에 가서 희생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앞에서 그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경험이 도움을 구하는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매 학기 매 수업마다 이 말을 수백 번이나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모든 것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파이에 손가락을 쥐고 계십니다. 그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손가락,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하는 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것, 즉 그것의 신학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2장에서는 당신이 나를 깊은 곳으로 던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은 배에 탄 선원들이 그를 깊은 곳으로 던진 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깊은 곳으로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깊은 곳에 있는 것과 여기서 깊은 것이 무덤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번 더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세요.

스올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두 개 있는 것 같았어요.

의인을 위한 구획과 악인을 위한 구획. 일부 학자들은 부활 후에 스올 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칸이 옮겨져 새로운 설명이 있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져 하늘

낙원이라고 불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칠십인역에서는 그것을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히브리어 뿌리에서 유래한 게헨나(Gehenna)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계곡을 의미하는 게(Ge)와 힌놈의 계곡(Hinnom of Hinnom)은 실제로 그 의미입니다. 그곳은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곳,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져가는 곳,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곳인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Gordon의 소유물은 이곳으로 이사했을 때 Gehenna를 갖고 있었습니다. Gehenna를 보려면 다음 출구인 Gloucester 방향으로 나오세요. 18번 출구로 나와 Pine Street으로 나와 Gordon 숲 방향으로 가세요. 고든이 여기에 왔을 때 계속해서 불타버린 쓰레기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봉인된 매립지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지역 게헨나였습니다. 길에서 죽은 동물들을 데려가서 불태웠던 곳. 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의 쓰레기는 길가나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로부터 수거되어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학물질이나 기타 다른 것들에 관한 모든 면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의 불타오르는 계곡이다.

때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기가 토펫만큼 덥다고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세심한 독자였으며 Tophet은 난로 또는 벽난로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게헨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부활한 후 실제로 최종 형벌을 받는 상태인 게헨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게헨나가 특별히 사용된 곳은 지옥이 사탄과 천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불못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사악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인 스올(Sheol)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2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다른 몇 가지 사항들. 9절에 이르면 예수의 이름이 파생된 이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루트 야샤(YASHAH). 야샤(Yashah)는 구출하다, 구출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사로 사용될 때, 그 단어는 마지막 음절에 강조가 있는 Yeshua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예슈아(Yeshua)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약에서도 신약의 서술자가 예수의 탄생 이름인 예슈아(그리스어에서는 예수스(Yesus)로 들어와 라틴어로 들어온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처럼.

그 이름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모든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슈아라 불러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유일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예슈아는 해방,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달라스의 제일침례교회가 아니라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계획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생에서 예슈아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의와 우려의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구속, 개인의 구원은 분명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문맥에 따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예슈아이시며, 종살이하던 백성을 위한 출애굽에서의 해방, 자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래나 물고기의 배의 손아귀에서 요나가 구출되고, 구원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은혜의 승리, 그분의 해방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즉,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까지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의 줄로부터의 개인적인 구원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슈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놀라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요나의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오셨고,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니네베에서 숭배되는 신들 중 하나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NIV와 같은 성경으로 가서 시편 119편의 중간 부분을 펴십시오. 왜냐하면 Nineveh라는 단어와 관련된 Nun이라는 문자가 물고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un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작은 머리가 있는 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니네베의 형상들 중 하나로 아이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N 문자를 나타냅니다.

M 문자는 알파벳 중앙에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학교 중 한 곳의 문장에는 랍비들이 성경에서 인식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인 Aleph, Mem, Tav 로 구성된 놀라운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중간, 마지막입니다. 남자 이름 Emmet은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Emmet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괜찮은. Nun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Emmet이라는 단어의 M 바로 옆에 있는 문자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큰 도시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비축해 둔 성경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에 관한 책을 위해 니네베에 대해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층에 있으며 이것의 광대함을 어느 정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말한 것 중 일부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단순히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흥미로운 표현이나 몇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두 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중 하나는 이 니네베 성읍이 RSV가 표현한 대로 매우 큰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NIV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매우 크거나 위대한 도시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그 특별한 표현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로마 역사가가 어떻게 전차가 성벽 꼭대기에서 나란히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성벽 도시 니네베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니네베 성은 둘레가 8마일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압축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도시에 압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유지될 것입니다. 즉,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성벽 도시 니느웨는 4장에서 120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120명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요나서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숫자는 니느웨의 인구가 120,000명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더 큰 니느웨로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위스의 작은 주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디에 사시나요? 글쎄, 당신은 내가 매사추세츠에 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스턴 출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0장 11~12절을 보면 니느웨가 여러 도시의 일부로 여겨졌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는 니느웨와 함께 언급된 4개의 도시입니다. 르호봇, 에레갈라 , 르신. 이 이름들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평행사변형에 더 가까운 도시를 취하며 그 참조는 기본적으로 둘레가 8마일이 아닌 60마일인 더 큰 니네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관심 중 하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따르면 니느웨는 너비가 3일 길에 달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글쎄요, 둘레가 8마일밖에 안 되는 도시는 상당히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도시를 바로 통과한다면 3일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NIV 요나서 3장에서 이를 암시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번역된 이유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토론과 런던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NIV를 번역할 당시 기사를 출판했고 그의 이름은 Donald Wiseman이었습니다. 대영박물관에서 매우 존경받는 학자. 그리고 그는 NIV 번역자 중 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어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Akkadian 소스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도시를 여행하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그는 NIV가 렌더링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에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성경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석에 대한 해석을 남겨두시면 좋은 성경 번역의 책임은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 또는 지금 그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너무 많이 이해한다면 약간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어로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세례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사용되는 물의 양과 세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세례를 받고 싶은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유지하고 몰입 여부와 뿌리기 여부 및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청중이 결정하도록 하세요. 해설자들이 유대인의 의식인 미크베오트(mikveot) 와 그 사람이 어떻게 물에 잠겼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반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현대의 세례 탱크처럼 요한이 예수를 물속에 집어넣는 박물관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갖는 예술적 묘사는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몰입하기 위해서였다.

몸을 담그십시오. 유대인의 침수 의식은 신약성경이 등장하기 전부터 수세기 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각 전통이 그것을 보고 가능한 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밥티조는 원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전을 방문하면 단어에 대한 단일 의미를 얻을 수 있지만 특정 문맥에 적용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 관용구를 받아들이고 Wiseman은 좋아요, 방문에는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Wiseman은 이를 고대 문헌에서 발견하고 이를 Tyndale Bulletin에 게재했습니다.

3일은 도시에 도착한 첫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도시를 방문하여 수행할 사업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날은 출발과 귀국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Wiseman은 이것을 고대 셈족 문학의 관용구로 식별했으며 실제로 니느웨가 앗시리아의 수도였던 앗시리아 세계에서는 이것을 여행의 첫날로 이해하고 도착하기 위해 둘째 날에 도착하는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정착 후, 출국 및 귀국 마지막 날에 담당자와 함께 업무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네베라는 도시, 즉 그레이터 니네베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맨체스터에서 에식스, 해밀턴, 웬햄까지 달리고, 그리고 나서 베벌리에서 마무리하고, 60평방 마일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 길모퉁이마다 설교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좋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거나 둘레가 60마일이라고 불리는 더 큰 니느웨입니다. 이 장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발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어림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세 왕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사울은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은 40년을 통치했으며,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기타 등등. 둥근 숫자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한 세대에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간까지 표시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성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4절에서는 그 말이 뒤집혔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 가서 커피를 좋아한다면 하푸스(haphuch) 는 뒤집힌 커피입니다. 커피와 우유를 섞은 걸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머리에 던졌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무언가를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발표는 뒤집혔습니다.

제가 예언의 조건적 성격에 관해 강의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이러한 선언과 함께 종종 이러한 부담과 함께 주어지는 이러한 신탁은 때로는 매우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S 회개하실 경우 이 공지를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당연히 적들이 전멸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이 강한 요나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리아의 거대 전사, 경찰, 당시 고대 근동의 집행자가 자기 백성의 일에 간섭하고 그곳에서 지중해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요나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하나님은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비로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분노가 길고, 분노하기가 더디고, 은혜롭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물러서거나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요나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3장 5절에 나오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까? 그들은 확실히 이 메시지에 응답했다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으며, 이 응답의 역사적 중요성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표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징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세기의 나의 유대인 동포인 여러분도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니네베 사람들이 했던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테슈바. 이것을 회개라고 번역하면 180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 언어는 돌아서라는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고, 외적으로는 가장 큰 사람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전체 공동체로서 응답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문학에서 아메리즘(Ameris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약되지 않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열면 Amerism이 전체를 나타 내기 위해 두 개의 반대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자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왕들과 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로 왔다거나 키가 큰 사람들과 키가 작은 사람들이 도시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도시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뜻합니다. 단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전체가 응답했고 그들은 말락족이나 말락족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요, 주권을 행사하는 자였고, 백성들은 염소 가죽을 가져가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베옷이라고 불리는 염소 가죽을 자신들의 몸에 입혔습니다. 외관상 매우 짙은 갈색이었고 거무스름했습니다.

장례식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밝고 경쾌한 색상을 입지 않습니다. 굵은 베의 색은 짙은 검정색이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총의 옷처럼 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열방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징이었습니다 . 그것은 왕으로부터 시작되고, 백성들은 흙 속에 앉는다.

이것이 재의 수요일에 일어나는 일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해밀턴에서 Christ Church Episcopal의 목사로 일했던 Juergen Lius 신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현재 그 지역의 성공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의 수요일에 그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일반적으로 재의 수요일에 사람들이 이마에 바르는 재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가 지적한 히브리어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구절과 다른 여러 구절을 회개의 상징으로 인용하고, 자신의 죽음과 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흙 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앉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왕이 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가축을 어떻게 포함하는지 주목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세상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낙타가 많았습니다. 그가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다가 가나안을 떠나 이곳으로 돌아온 밧단 아람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람 나하리암 , 두 강의 아람, 또는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 그는 낙타 열 필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부하 직원은 318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족장,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떠돌던 사람들, 유목민, 반 유목민, 상인, 그들의 부는 일반적으로 가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돌아와 더 넓은 하란 지역으로 돌아와 엘리에셀의 수종에게 낙타 열 마리를 데리고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데려오고, 리브가를 결혼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

그들은 이 동물들이 매우 가까웠던 공동체 전체에 회개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7절을 빠르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표현을 공동체에 아끼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20,000마리 이상의 많은 가축을 아끼셨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간과할 것입니다. 십계명에 성경 시대의 존 디어와 농장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당신의 소와 당나귀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들에게 쉬게 하여 주소서. 그들은 지역 사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이는 흠정역 성경을 철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회개하십니다. 그 언어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18장 5절과 내가 언급한 예언의 조건적 성격에 대해 언급한 구절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행동 경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응답하여 그의 행동을 바꾸신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이 하나님 편에서 일종의 수동적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언어는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신에게 인간과 같은 형태나 감정을 부여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과 같은 감정을 묘사하는 인지병증입니다.

즉, 인간의 제한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회개하시거나 훨씬 더 나은 말씀을 뉘우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선을 위해 수정될 때 자비와 긍휼, 그리고 후회하는 심판으로 행하십니다 . 신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여기에는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강렬한 민족주의는 이스라엘의 강력하고 미워하는 적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은 요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나의 분노에 관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록 그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동정심과 선언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의 가장자리로 나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 작은 은신처를 만듭니다.

그는 매우 쉽게 열사병에 걸리고 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돋아 그늘을 드리우는 이 포도나무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말씀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톨라를 보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 오면 톨라벌레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톨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이 작은 곤충, 즉 이 벌레의 이름인데, 염색 산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염색 찍혔고, 부서졌습니다. 물에 넣으면 지워지지 않는 염료가 생성됩니다. 근절될 수 없는 것. 그것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벌레로 번역된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진홍색입니다. 붉은빛이 도는 보라색 색상이에요.

그 벌레가 생산됐어요. 출애굽기를 펴서 성막의 아름다운 덮개 중 일부가 어떻게 톨라의 색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칼렛, 진홍색.

여기에 벌레가 오면 물론 포도나무를 선택하거나 피마자유 식물을 선택한다고 일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높이가 12피트까지 자랄 수 있는 관목입니다. 그런 환경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큰 그늘진 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시들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뜨고 함신이 따라온다.

그리고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함신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세요. 중동 어디든지요. 함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Hamsin 은 50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50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Hamsin 입니다 . 아주 근접한.

둘 다 셈족 언어입니다. 왜 50이라고 부르나요? 대략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50일 동안 일반적으로 우세한 바람이 바뀌어 뜨겁고 건조해지며 온갖 종류의 먼지 입자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해가 어두워지면 3일 동안 빛이 가려지고, 나일강 삼각주에서 함신 으로 인해 일식이 일어나 이 뜨겁고 가루 같은 검은 먼지가 공중에 휘젓는다고 믿고 있다.

그 동풍에 의해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 뜨거운 동풍,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틀림없이 들어와서 요나가 기절하게 만드는 강렬한 바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며 바로 이 시점에 개인적인 동정 파티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못 박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특별한 본문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복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선지자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니네베 사람 십이만 명을 살려 두신 것에 비하면 이는 모두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복지와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단순한 식물이 가져다주는 위안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기에는 확실한 주장이 있습니다. 하물며 선지자는 개입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컨대 요나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삐죽삐죽한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수천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얼마나 더 비이기적으로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 그래서 내 생각엔 그가 책을 마무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요나를 불러낸 것은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메시지는 나와 나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더 넓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교훈이며, 실제로 책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국제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세션 10, 요나서 3부입니다.